

중국의 2013년 노동시장 전망

모룽(莫榮)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제노동보장연구소장)

■ 2012년 노동시장 분석

취업양상의 안정과 개선 : 2012년 11월 도시신규취업자 1,202만 명, 133% 초과 달성

2012년 11월 기준 중국 도시신규취업자는 1,202만 명으로, 연간 900만 명이라는 신규취업자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겨 초과 달성했다. 이는 역사상 최고 기록일 뿐 아니라 신규 취업자 수도 동기대비 4%나 증가했다. 2012년 3사분기 말 기준 도시 등록실업률은 4.1%로 2012년 2사분기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시 신규취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로 중서부 지역과 일부 업종의 고용 수요 증가와 고용 규모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동부 지역의 신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농촌 이주 노동력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양상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취업양상은 안정세 속에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요인의 영향으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몇 가지 새로운 특징을 보였는데, 우선 도시실업인구와 취업취약인구의 취업 및 재취업 규모가 2011년 동기대비 줄어들고 취업난이 가중되었다. 도시실업인구의 재취업 규모는 2012년 1~9월 432만 명으로 동기대비 0.9% 감소하면서, 연간 500만 명이라는 목표의 86%를 달성했으며 2012년 3사분기에는 138만 명으로 동기대비 5.5% 감소했다. 2012년 1~9월 취업취약인구의 취업 규모는 연간

120만 명이라는 목표의 113%인 135만 명으로 동기대비 0.03% 감소했으며 2012년 3사분기에는 40만 명으로 동기대비 13.0% 감소했다. 이는 현재 취업양상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구조적 모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성장동력의 발굴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취업양상이 양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정부가 일자리 업무를 최우선시하면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취업 정책에 관한 높은 자각으로 능동성을 발휘했다. 2012년 2월 2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제 32차 집단학습회를 열었는데, 그 주제는 바로 ‘국가의 적극적 취업정책의 실시’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는 집단학습회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로 노동자의 취업 수요와 노동력 공급은 과다한 반면, 그에 따른 노동의 질적 불균형이라는 장기적 모순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부터 전체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취업 총량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동시에 취업의 구조적 모순은 더욱 표면화될 것이므로, 취업양상은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는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 실시를 위한 자각과 능동성을 높여, 완전고용 추진을 샤오캉(小康) 사회¹⁾ 전면 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2년 7월 1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국취업창업공작표창대회 발언을 통해, 고용 확대는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취업 업무의 중차대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높여 취업과 창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업무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취업 업무에 대해 목표 책임제를 시행하여 각 유관부서가 책임지면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취업 업무 이행에 대한 능동성을 높이고 일자리 확대를 함께 추진했다.

② 거시경제정책에서 고용 성장에 주목하고 일자리우선발전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제12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이미 과거 성장우선에서 고용우선의 중요한

1) 역자 주: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개념으로, 중산층이 늘어나 국민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걱정이 없고 여유가 있는 상태를 일컫음.

전환기로 접어들었다. 고용우선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전략이고 또한 국가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최우선적 목표이기도 하다. 일 자리우선전략 실시를 위해서는 고용확대가 경제사회 발전과 경제 구조조정 of 주요 목표가 되며, 고용촉진을 경제사회발전의 모든 과정에 편입시키고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는 산업, 무역, 재정, 세제, 금융 등 정책·조치를 시행하여 고용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③ 취업 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취업 업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2002년 9월 중국은 적극적 취업정책이라는 기초를 내놓았다. 2007년 8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는 「취업촉진법」을 심의·통과시켜, 효율적인 적극 취업 정책을 법제화하고 취업 촉진을 위한 업무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취업촉진 업무의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했다. 공공 취업서비스 시스템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을 망라하는 새로운 공공취업서비스시스템이 중앙, 성, 시, 현, 향진(街道), 촌(社區)의 6단계로 서비스망을 확장하고 서비스 형태도 날로 보완하면서 실질적으로 취업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발휘했다. 동시에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취업양상 분석과 취업 핵심난제 연구를 강화하여 업무 방식과 형태를 끊임없이 개선했다.

경제성장 속도의 완화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 저하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 중국 노동시장정보망 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중국 100개 도시의 공공직업소개서비스기관이 노동시장의 직업 수급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볼 때,²⁾ 2012년 3사분기 도시 고용업체가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을 통해 고용한 인원은 약 643만 3천 명이고 시장에 진입한 구직자는 약 610만 명으로, 구인배율³⁾은 약 1.05였다. 이는 2012년 2사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1년 동기대비 0.01 늘어난 수치이다.

2011년 동기대비 2012년 3사분기의 구인수요와 구직자 수는 각각 19만 3천 명과 28만 7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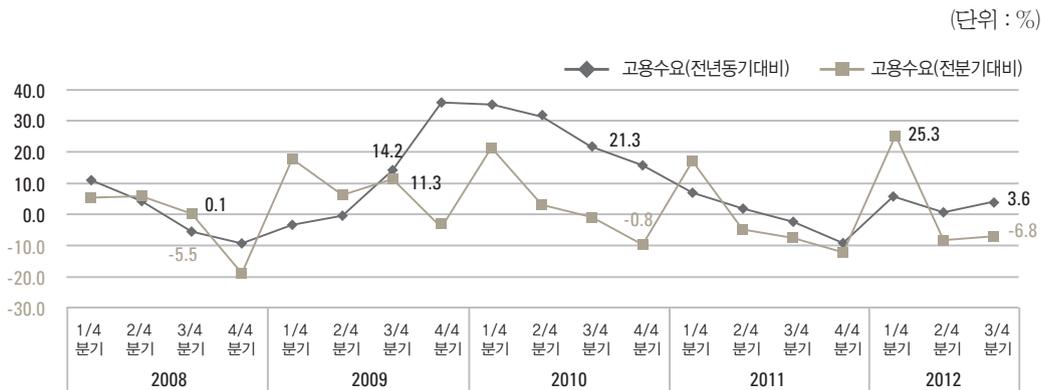
2) 데이터 출처: 중국 노동시장정보망 모니터링센터의 2012년 3사분기 일부 도시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의 시장 수급 상황 분석.

3) 구인배율=구인수요/구직자 수. 구직자 1명당 시장에서 고용하려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0.8은 10명의 구직자가 8개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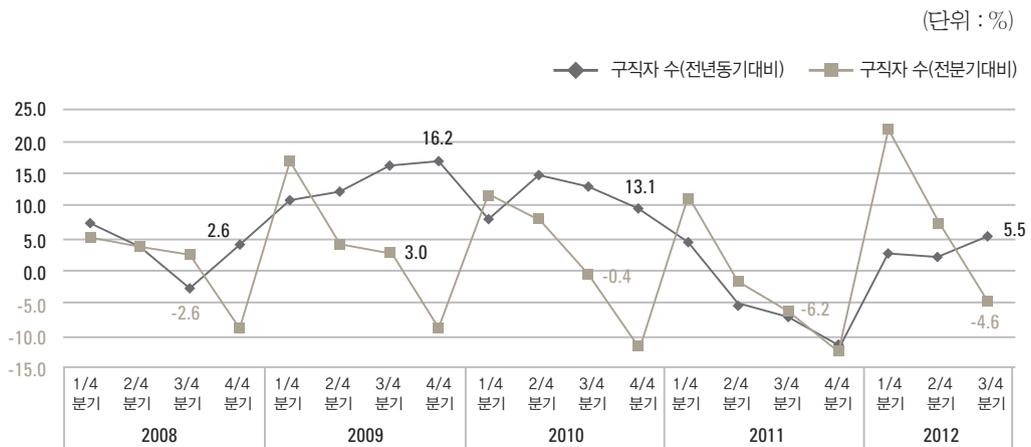
명으로, 각각 3.6%와 5.5%가 증가했다. 하지만 시장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12년 2사분기와 비교할 때는, 구인수요와 구직자 수가 각각 6.8%와 4.6% 떨어져 각각 41만 3천 명과 26만 6천 명 감소했다(그림 1, 그림 2 참조).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3사분기 동부지역의 노동시장 고용수요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와 전분기대비 7% 감소를 보였다.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그림 1] 노동시장 고용수요 변화추이



[그림 2] 노동시장 구직자 수 변화추이



11.3%와 8.6%가 늘어났지만, 전분기대비 9%와 2.8%가 줄어들었다.

3차산업 고용수요=60%, 취업의 구조적 모순 첨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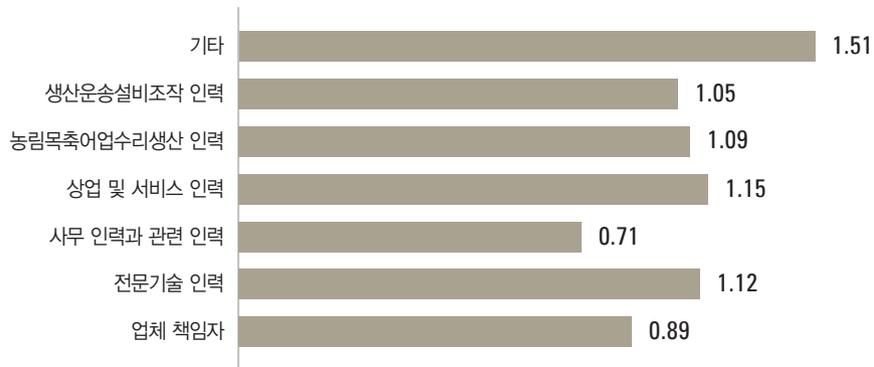
1, 2, 3차산업의 구인수요 비중은 2012년 3사분기에 각각 1.6%, 38.9%, 59.5%로, 노동시장에서 3차산업이 고용수요의 약 60%를 차지했다. 2차산업의 고용수요는 전년동기대비 2.2%포인트 줄었고, 3차산업은 전년동기대비 2.5%포인트 늘었다. 3차산업 고용수요의 1~4위는 주민서비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이 차지했는데, 3차산업 전체 고용수요의 각각 27.7%, 22.5%, 18.9%, 10.2%로 합계 79.3%를 기록했다.

중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산업화 중반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고용수요는 생산운송설비조작 인력, 상업 및 서비스 인력의 두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수요는 각각 35.5%와 30.9%로 합계 66.4%에 달했다. 전문기술 인력과 사무 인력과 관련 인력⁴⁾ 분야의 고용수요가 비교적 큰 편으로, 그 비중은 각각 13.2%와 9.5%였다. 2012년 3사분기를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생산운송설비조작 인력의 고용수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2% 상승했고, 상업과 서비스 인력의 고용수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다. 수급 상황을 비교해 보면, 노동시장에서 상업 및 서비스 인력, 전문기술 인력, 농림목축어업수리 인력, 생산운송설비조작 인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구인배율이 각각 1.15, 1.12, 1.09, 1.05인 반면, 사무 인력과 관련 인력은 구직자 수가 일자리보다 많아 구인배율이 0.71에 불과했다(그림 3 참조).

기술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모든 기술등급에서 구인배율이 모두 1보다 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 노동력 수요가 공급을 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급기사, 기사, 고급엔지니어의 구인배율은 각각 2.86, 2.38, 2.37로 2를 넘어, 노동시장의 수요만족도가 50%에 못 미쳤다. 고용업체 수요 가운데 기술등급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52.7%를 차지했다. 고용이 필요한 기술등급은 주로 초급기능 인력, 중급기능 인력 및 엔지니어에 집중되었다.

4) 역사 주: 국가기관, 당 조직 및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행정 업무와 행정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과 안전보위, 소방, 우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그림 3] 각 직업 유형별 수급비율



새로운 도농 주민사회양로보험제도의 전격 시행으로 사회보장제도 개선

2012년은 중국 사회보장 역사상 기념할 만한 해로서, 중국은 새로운 도농 주민사회양로보험 제도를 통해 기본적으로 전 국민 연금을 실현했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모든 현급 행정단위에서 새로운 도농 주민사회양로보험 업무를 개시하여, 도농 연금가입자 수가 4억 4,900만 명이 되었고, 1억 2,400만 명의 노인이 매월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2012년 9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도시노동자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출산양육보험 가입자는 각각 2억 9,875만 명, 5억 2,906만 명, 1억 4,916만 명, 1억 8,567만 명, 1억 5,074만 명으로, 각각 전년 말 대비 1,484만 명, 5,563만 명, 599만 명, 871만 명, 1,182만 명이 늘어났다. 1~9월 전국 5대 사회보험기금 총수입금은 2조 40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4.6% 증가했고, 총지출금은 1조 5,889억 8천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23.2% 증가했다.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도 진행되었다. 정부 유관부처는 군인퇴역양로보험 관계이전 지속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군인이 퇴역 이후 기본양로보험으로 이전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했다. 또한 도농 주민의 중대질병보험 업무 개시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고, 기본의료보험급여 총액 제한에 관한 문서를 연구·제정했다. 이 밖에 산재 장애보조기구 리스트를 제정·공표하였고, 사회보장카드를 2억 6,700만 장 발급했다.

정부의 임금지불 장기효과보장 시스템 건설 강화 : 노동보장 감찰 '네트워크화+그리드화' 관리 적극 추진

정부는 노동계약법을 차근차근 관철·실시하고 있다. 소기업 노동계약제도 실시 관련 여러 활동과 농민공 노동계약 체결 준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기업과 농민공의 노동계약 체결률을 제고했다. 또한 노무과건 규제 관련 각종 행동방안을 제정·전개하였고, 고용노동자 등록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고용관리, 정책지원 등의 측면에서 등록시스템이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 이 밖에 「특수노동시간제도 관리규정(초안)」을 마련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노동관계화합 기업과 공단 창설 활동을 활성화하고, 향민업종 삼자시스템을 구축했다.

임금 단체협상과 기업 임금가이드라인 조절제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임금 단체협상을 핵심으로 단체협약 제도의 '무지개 계획'⁵⁾을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최저임금기준 조정작업을 완료하여, 2012년 9월 말 기준 전국 18개 성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였는데 평균 상승 폭은 19.4%였다. 현재 한 달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선전(深圳)의 1,500위안이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으로 14위안이다. 임금가이드라인 공표 작업을 완료하여, 9월 말 기준 20개 성에서 보편적으로 약 14% 수준의 2012년도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밖에 임금지불 장기효과보장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쟁의 조정과 예방 업무를 강화하여 쟁의처리 효율을 높였다. 1~9월 각급 중재기관에서 수리한 쟁의안건은 47만 9천 건으로 동기대비 11.9% 증가했고, 관련 노동자가 66만 명으로 동기대비 19.4% 늘었으며, 해당 기간 조정 완료된 쟁의 안건은 45만 7천 건으로 동기대비 12.0% 증가했다.

노동보장 감찰 업무를 일상적으로 집행하고 노동보장 감찰 제도 구축을 강화했으며, 노동보장 감찰 '네트워크화+그리드화' 관리를 추진하면서 노동보장 감찰의 '기관 표준화, 인력 전문화, 집행 규범화' 목표를 실현했다. 1~9월 전국 노동보장감찰기관이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한

5)역자 주: 단체협상과 단체협약 제도를 전면 추진하여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무지개처럼 소통의 다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용업체는 총 150만 개(관련 노동자 8,500만 명)였다.

농민공 업무도 차근차근 추진되었고,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도 순조롭게 진전되었다. 중국 국무원의 농민공 문제의 진일보 해결에 관한 약간 의견이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이며, 농민공 종합서비스플랫폼 구축 지도의견이 제정 진행 중이다. 초안 내용에 가정서비스업을 더욱 적극 지원·발전시키는 정책이 포함되면서 1,000대 가정서비스기업(업체) 구축 활동을 조직·전개하게 된다.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 업무가 순조롭게 진전되는 가운데, 9월 말 기준 전국 농민공의 도시노동자 기본양로, 기본의료, 실업,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4,453만 명, 4,922만 명, 2,609만 명, 6,995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313만 명, 281만 명, 217만 명, 167만 명 늘었다.

■ 2013년 중국 노동시장 발전 전망

2013년 중국 노동시장을 전반적으로 전망해 볼 때, 노동력 공급은 여전히 2,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의 신규일자리 목표인 900만 명에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300만 개의 일자리를 더하면 일자리는 모두 1,200만 개이다. 따라서 노동력 수급 격차는 여전히 약 1,300만 개 수준을 유지하게 되므로,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와 함께 2013년 중국 노동시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주목되는데,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를 배경으로 한 일자리우선 전략의 실시 방안과 경제성장의 질과 높은 고용의 질을 결합한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성장 속도 둔화를 배경으로 한 일자리우선 전략의 실시 방안

2011년부터 중국경제는 7분기 연속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1년 1사분기 중국경제성장률은 9.7%였으나 4사분기에는 8.9%를 기록했고, 2012년 1사분기에는 8.1%로 떨어졌으며 3사분기에는 7.4%까지 하락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은 약 7.8%로 집계되었다. 2013년도에도 중국경제는 계속 한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과거 장기간 약 10% 전후를 유지했던 경제성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국정

부는 경제성장 속도 둔화를 배경으로 한 일자리우선 발전전략의 가능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정치학적 관점이다. 중국에서 일자리는 민생의 근본이자 국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며,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위한 중차대한 목표로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국제적으로도 일자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로서 종종 한 정당이 유일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일자리는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과연 일자리를 우선적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거시경제는 4대 문제를 다루는데, 첫째는 경제성장이고 둘째는 인플레이션 억제이며 셋째는 국제무역수지의 균형이고 넷째는 일자리 증가 또는 실업 감소이다. 이 4대 목표는 모든 나라에서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4대 과제가 된다. 여기서 무엇을 최우선적 지위에 두어야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인플레이션 억제 문제를 보자. 이번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공감대라면,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인플레이션 억제 우선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지금은 일자리가 인플레이션 억제에서 고려해야 하는 우선목표에 포함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를 설정할 때 먼저 일자리와 경기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억제 방식은 주로 화폐발행의 통제와 임금 상승의 통제인데, 이는 소비 증가와 경제성장에 모두 저해되므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억제는 현재 더 이상 우선시되는 목표가 아니다.

둘째, 국제무역수지의 균형 목표를 살펴보자. 국제무역수지는 전체 경제의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국제무역수지가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최우선 목표는 아니며, 더욱이 수출이 우선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경제성장과 고용촉진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개도국으로서 중국은 근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우선 목표에 두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성장이 여전히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의 방법은 다양한데, 그중 하나는 투자이다. 투자는 중국에서 장기간 활용해온 방식이며 또한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면 일부 생산능력

을 소화할 수 있고, 또한 분명히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투자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다. 금융위기 초반 4조 위안의 투자는 민심을 움직였으며, 2년 동안 2,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09년 고정자산투자는 23조 위안으로, 투자가 GDP(34조 위안)의 67%를 차지했다. 그러나 투자는 결국 중간수요에 불과할 뿐 최종소비는 아니며, 경제성장을 이끌고 현재의 소비를 해결하는 한편 미래의 생산능력 과잉이라는 문제를 남기는 시한폭탄이기도 하다. 또 다른 경제성장 방법으로 소비가 있다. 정부, 기업, 노동자의 소득비중 가운데, 1차 분배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중국은 농촌 가전 보내기와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소비를 늘렸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으며, 근본적인 돌파구는 역시 노동자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수출 증대가 있다. 수출 증대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주력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의 성장 여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인 균형으로 볼 때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우선적 목표로 삼는 것은, 특히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의 실현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거시경제의 4대 목표 가운데 고용촉진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고용촉진을 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곧 더 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이자 소득의 증가와 국내 소비의 증가를 의미하며, 또한 과거 물질자원에 의존했던 경제성장 방식에서 인력자원에 의존하는 더욱 효율적인 성장방식으로의 목표 전환을 의미한다. 거시경제의 4대 목표를 살펴볼 때에도 역시 중국은 고용우선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우선 전략을 관철·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달성해야 한다. 첫째, 일자리우선 전략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 방식을 선택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라는 중국 고유의 장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취업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시스템 형성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성장 속도를 결정할 때 완전고용 실현이라는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거시정책을 조정할 때 실업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일자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끊임없이 확대하여 공공재정의 보장과 사회 각계각층의 다원적인 자금 투입 시스템을 형성한다. 다섯째, 취업성과를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삼아, 각급 정부의 '일자리우선'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정부목표책임제를 시행한다.

경제성장의 질과 높은 고용의 질의 결합 방안

2012년 12월 4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규칙을 존중하는 양질의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속도이며, 또한 경제성장 방식의 지속적인 전환과 경제구조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한 성장 실현이 요청된다”고 지적하여,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제고라는 2013년의 정책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경제성장률에 실질적인 효율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장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즉 중국 경제성장의 동력을 투자와 수출에서 내수, 투자, 수출의 상승효과 및 혁신 동력에서 찾겠다는 의미로, 이는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중대한 변화이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2012년 11월 15일 발언에서 인민들이 “더 양질의 교육, 더 안정적인 일자리, 더 만족스러운 소득, 더 든든한 사회보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바람이 곧 우리의 분투목표다”라고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양질의 경제성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고용의 질을 정의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신창싱(信長星) 부부장의 인식을 살펴 보면, “주로 충분한 취업기회, 공평한 취업환경, 양호한 취업능력, 합리적인 취업구조, 조화로운 노동관계 등을 가리킨다.” 이 정의는 거시적인 측면에 치중한 표현이며,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한다는 면에서 제12차 5개년 계획부터 실시하는 일자리우선 전략과 일치한다.

일자리우선 전략을 배경으로, 노동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노동자 소득 증대라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다수 노동자, 특히 2세대 농민공들은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주로 80년대 이후 출생자로 이루어진 2세대 농민공이 외지에 나가 일하는 농민공의 주류가 되었고, 이들은 1세대 농민공에 비해 권리의식이 높아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초 폭스콘, 광둥(廣東) 혼다(本田) 부품공장 등에서 일어난 관련 사건으로 촉발된 기업들의 ‘임금인상열풍’이 바로 2세대 농민공의 구체적인 요구의 표출이었다. 2세대 농민공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2세대 농민공들은 도시에 자리잡고 살기를 원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소득’이 도시 정주(定住)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2세대 농민공이 67.2%나 된다.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 증대 역시 현재 최우선 과제임에 분명하다.

현재 임금인상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에 일조할 수 있다. 임금이 인상되면 소비 수요를 촉진시킬 수 있어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인상은 수요 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경제 구조조정을 동반하므로, 이 역시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경제 구조조정 of 주요 내용이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면 인력자본 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온다. 소득이 높아지면 노동자는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보하게 되므로, 이 역시 우리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소득 증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내용이자 중국 경제 구조조정 과 성장방식의 전환을 통한 양질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 **KLI**

참고문헌

- 중국 노동시장정보망모니터링센터(中國勞動力市場信息網監測中心), 2012년 3사분기 일부 도시 공공취업서비스기관 시장수급상황 분석.
-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社會保障部), 2012년 3사분기 뉴스브리핑, 중국취업네트워크(中國就業網), 2012. 10. 25.
- 모룽(莫榮), 「분석과 전망: 2013년 취업양상」, 『中國勞動』 2013년 1期.
- _____, 「양질의 일자리 성장 실현」, 『經濟參考報』 2012. 12. 28.
- _____, 「일자리우선 전략의 실질적 이행」, 『半月談』 2012년 5期.